"늙었다고 괄시 마… 나 지금 한창이야"

중견배우 전성시대

〈이순재〉

영화계 중견배우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특히 환갑을 훌쩍 넘은 노(老)배우들의 활약은 영화계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있다. 이들은 젊은 배우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극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 최근에는 조역급에서 벗어나 당당히 주역으로 활약하며 영화계 소재도 확장시키는 중이다.

최근 촬영에 들어간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연기파 노배우들이 대거 출연한다.

이순재·윤소정·나문희·김수미 등 '탄탄한 연기력' 스크린에 활력소

황혼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린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인기 만화가 강풀의 동명 인터넷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로 연재 당시 3천만뷰를 달성한 작품이다. 특히 최주봉 등이 출연한 연극으로도 만들어져 12만명의 관객을 모은 화제작이다.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지붕 뚫고 하이킥'을 통해 김자옥과 알콩달콩 노년의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순재는 이번 작품에서 욕을 입에 달고 사는 무뚝뚝한 김만석 역을 맡아 송이쁜 역으로 출연하는 윤소정과 호흡을 맞춘다. 윤소정은 이해랑연극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 두 사람은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부부로 함께 출연한 바 있다.

이순재는 지난해 장진 감독이 연출한 '굿모닝 프레지던트'에서는 로또 당첨금 244억 앞에서 속앓이 하는 대통령을 맡아 코믹 연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에서 치매를 앓는 아내를 돌보는 장군봉을 맡은 송재호 역시 내년이면 일흔이 되는 노장 배우다. '해운대', '그림자 살인' 등을 통해 극을 받치는 탄탄한 조연 역할을 해온 송재호는 이번 작품에서 치매 걸린 아내 조순이 역을 맡은 김수미와 애틋한 사랑을 만들어간다.

노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마파도'와 설경구·송윤아 주연의 멜로물 '사랑을 놓치다'를 감독한 추창민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지난주 개봉한 '육혈포 강도단'은 아예 할머니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다.

'육혈포 강도단'은 은행에서 돈을 강탈당한 세 명의 할머니가 돈을 되찾기 위해 강도단이 돼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다.

주인공 중 한명으로 출연하는 나문희(정자역)는 올해 69세의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이미 '권순분 납치사건'을 통해 주연을 꿰찬 적이 있는 나문희는 이번 영화에서 평균 나이 65세 최고령 강도단을 이끄는 터프한 리더로 출연한다. 정자는 소주를 음료수처럼 마시고, 화려한 운전 솜씨를 지니고 있으며 때론 과감한 액션도 서슴지 않는 터프한 할머니다.

나문희는 3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관객들이 눈물샘을 자극한 '하모니'에서도 열연한 바 있다.

이번 영화에서 나문희와 호흡을 맞춘 김수미 역시 내년이면 환갑이지만 나이를 잊고 종횡무진 활약중이다.

'마파도'에도 출연한 바 있는 김수미는 '육혈포 강도단'에서 자신의 주특기인 속사포 같은 입담과 걸쭉한 욕설로 주로 협상을 담당하는 행동대장역을 맡아 코믹 연기를 선보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윤소정〉

'육혈포 강도단'의 김수미·나문희·김혜옥〈왼쪽부터〉

새 영화 데이 브레이커스

뱀파이어 영화의 진화 원인모를 전염병 지구 휩쓸고 '소수종족' 인간의 운명은…

뱀파이어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한 스릴러물이다.

서기 2029년 정체 불명의 바이러스가 퍼져 인류 대부분이 뱀파이어로 변한다. 뱀파이어들은 인간 문명과 비슷한 사회를 만들고 살아가지만 혈액 공급을 위해 사육하는 인간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면서 위기에 빠진다.

살아남은 사람이 소수에 불과해 뱀파이어의 수요만큼 인간 피가 공급되지 못해 세계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인간을 사육해 뱀파이어에게 피를 공급하려는 기업 블러드 뱅크가 생긴다.

동생에게 물려 뱀파이어가 된 블러드 뱅크의 연구원 에드워드 달튼은 인간과 뱀파이어가 공존할 수 있도록 혈액 대체재를 개발하려 하지만 실패한다.

뱀파이어를 피해 숨어사는 라이오넬 일당이 나타나자 에드워드는 뱀파이어를 인간으로 돌릴 수 있는 치료제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에단호크가 뱀파이어 에드워드로 출연하며 윌리엄 데포가 라이오넬 역을 맡았다. 쌍둥이 형제 감독 피터 & 마이클 스피어리그 가 메가폰을 잡았다. 〈18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